

김대통령 3남, 홍걸씨 결국 구속, 수감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한 끝에 어렵게 박영숙 전 총재(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와 마주할 수 있었다. 박총재는 이희호 여사의 후임으로 YWCA 총무를 맡는 등, 이미 60년대부터 이여사와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최측근 중의 한 명으로, 평민당 시절에는 당 부총재직을 맡기도 했다. 박여사는 이여사와의 오랜 친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홍걸씨를 쫓 지켜볼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의 하나다.

“무척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기자의 전화를 받고 기억을 되짚어보는데, 그 집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도 홍걸이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걸 깨닫고 저도 새삼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말이 없었죠. 동교동 집이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그 좁은 데서도 홍걸이가 떠들거나, 돌아다니는 걸 본 기억이 없으니, 아니, 아예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으니 얼마나 조용한 애인지 짐작이 갈 거예요.”

박영숙 총재는 홍걸씨를 ‘무척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로 회고한다. 그러나 그녀가 본 유년기의 홍걸씨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홍걸씨는 원래 무척 명랑하고 재물을 잘 떠는 아이였다고 한다. 돌 잔치 때 보고 얼마 후였을까, 시간은 얼마 흐르지 않은 것 같은데, 부쩍 커 갓 말을 배우기 시작한 홍걸씨를 이여사가 YWCA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다. 당시 홍걸씨는 아버지 김대통령의 연설을 흥내내는가 하면, 동네 확성기 방송 흥내를 내는 등 재물을 떨어 모인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리고 1976년 3월 1일, ‘명동사건’으로 불리는 ‘민주구국선언서’ 발표 사건 직후, 김대통령을 위시한 참여 인사가 긴급조

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박총재는 다시 홍걸씨를 마주할 수 있었다. 당시 각 구속 인사 가족들이 기독교회관에 모였는데, 14살이었던 홍걸씨 또한 어머니 이여사를 따라 와 있었던 것. 홍걸씨는 또래 아이들과 그냥 재미있게 뛰어놀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그때 차를 한 대 빌려 아이들만 영화관에 보냈는데, 그때도 경찰들이 따라붙어 진저리를 쳤던 것만 기억에 선 연하다.

또래 아이들과 별다를 것이 없었던 홍걸씨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것이 박총재의 증언이다.

“이선생님(이여사)은 집안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 집안 사람 챙길 일이 생겨도 같이 고초 겪으시는 주변 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대로 잘 챙겨주시지도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깐. 다만 홍걸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걱정하는 애길 들은 적이 있어요. 홍걸이가 통 말을 안 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구요.”

김홍걸씨는 점점 숫기가 없어지면서 사람들 있을 때는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조용히 옆에 다가와서 소매를 잡아끄는 소심한 아이로 변해갔다.

항상 말이 없고 소극적인 성격

잘 알려져 있듯 김대통령은 슬하에 세 아들만 두고 있다. 위의 두 아들 홍일, 홍업씨는 58년 사별한 전부인 차용애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고, 막내 홍걸씨만 이희호 여사가 낳았다. 한 측근의 증언에 의하면 이여사는 자신이 직접 아이를 낳게 되면서 혹 위의 두 아들과 소원해질까 스스로 무척 경계했다고 한다. 때문에 이여사는 40대에 얻은 늦둥이 아들인데도 맘껏 애

| 긴급 취재 |



“야당 총재 아버지, 어려운 두 형 밑에서 어릴 때부터 외롭게 자란 홍걸이의 성장 과정 처음으로 밝힌다”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김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최규선씨와 공모하여 복표 발행사업권 및 각종 이권에 개입, 알선 수뇌한 혐의로 지난 5월 18일 구속 수감됐다. 대통령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베일에 싸여있었던 홍걸씨. 그의 안 알려진 성장 사연을 취재해보았다.

●글·이영래/ 사진·차지현, 일요신문

이희호 여사의 가장 친한 친구



박영숙 전 의원 본지에 단독 공개



1. 홍일, 홍업, 홍걸씨 세 형제가 나란히 자리를 같이 한 모습.
2. 홍걸씨 들 사진. 홍걸씨는 김대통령 내외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다.
3. 홍걸씨 결혼 당시. 본인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김대통령 일가의 분위기로 연애 결혼했다. 부산 출신의 부인 임씨씨는 디자인을 전공한 평범한 여성. 부친 임정상씨는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정을 줄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김대통령의 옥바라지까지 겹쳐 어린 홍걸이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다고.

이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중이던 김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 펴낸 '내일을 위한 기도' (여성신문사 간)에서 아들 홍걸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형주(김대중 대통령의 막내 동생 김대현씨의 장남) 생일에는 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여자친구도 오고 또 여자친구 전화도 자주 온다 합니다. 그러나 홍걸이는 일절 그런 일 없고 지난 번 학부모 소집시 담임선생 말씀이 홍걸이 보고 너는 여자친구 없느냐 물어보니까 "지적인 아이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언제나 학교와 집 외에는 가는 곳이 없고 용돈은 책 사는 데와 음악 감상 위한 테이프 구입에만 써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고집이 강한데 요즘 보면 그 고집은 고집을 위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서 펍 염려스러워요. (1981년 11월 12일)

당신이 홍걸이 (아버지를) 피한다 하여 야단치셨는데, 요즘 계속 나나 홍업이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아요. (1981년 4월 11일)

홍걸씨의 이런 성격 형성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일, 홍업 두 형과는 각각 15세, 13세 차이가 나 집안 식구들 중 마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의 성장기 내내 아버지 김대통령은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되는 구속, 연금을 겪었다. 정권의 감시는 어린 홍걸씨라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내내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학교에 다녀야 했다.

그런 홍걸씨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90년 6월 24일, 친구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디자이너 임미경씨와 결혼하게 되면서였다. 부산 출신의 부인 임씨는 디자인을 전공한 평범한 여성으로, 그녀의 아버지 임정상씨는 당시 스포츠용품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결혼을 중심으로 각 여성지는 홍걸씨에 대한 이야기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는데, 이중 모 여성지 90년 7월호에 실린 '이희호 여사가 홍걸씨 아내에게 주는 시어머니

내간문'은 홍걸씨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여사의 관찰을 잘 담고 있어 좋은 자료가 된다.

'아버지 납치 사건' 때 홍걸이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다. 8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주일 가까이 홍걸이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야만 했었다. 다행히 13일 저녁 아버지가 비록 초췌한 모습 일망정 살아서 귀가한 환희를 맛볼 수 있었지만, 그 이틀 뒤인 15일부터는 경찰 3명과 함께 살아야 하고 경찰과 같이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감시 상태에서 꿈 많은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야만 했었다.

사춘기라는 중학교 시절을 몽땅 감옥에서 보내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고, 고등학교 2학년인 80년 5월 17일에는 아버지 목에 차가운 총부리가 겨눠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생각해보면 홍걸이 나이가 어렸던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제 큰형이나 둘째 형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옥을 들락거려야 했으니까.

학창 시절 내내 경찰 감시 받아

자기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수험생 한 명을 붙들고 정성을 쏟아도 붙을까 말까 한다는 대입 수험 준비를 홍걸이는 아버지가 감옥에 붙들려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며 해 나가야만 했다.

그뿐 아니었다. 애미인 나도 옥바라지에 매달려 있었으니, 모든 사람의 출입이 기관원들에 의해 통제되는 감옥보다 더한 동교동 집은 차라리 무인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 아버지가 용공에다 내란 음모 주모자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등교하는 홍걸이에게 나는 차마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었다.

낮잠을 자지 않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몇 시간씩 텅 빈 집에서 낮잠을 잔다며 누워 있는 게 측은하고 불쌍해서 80년 6월 중순쯤 '아버지에 대한 신문보도는 다 거짓이다'고 말해주었더니, 홍걸이는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느냐'는 듯한 표정으로 묵묵히 제 방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었다.

아마 홍걸이의 음악감상 취미는 이때 생긴 게 아닌가 싶다. 외부 사람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텅 빈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밖에 없었을 터이니. 지금까지도 내가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인생을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시작되었던 아버지의 미국 망명길에 따라나설 때 홍걸이는 어둡고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와 같이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밝은 모습이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홍걸씨는 당시 부친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집안의 흉흉한 분위기에 가위 눌리듯 놀라 잠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얼마 후 아버지

책상 밑에 숨어들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이여사가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홍걸씨는 눈에 눈물이 그렇그런한 채로 “아빠, 살았어? 죽었어?” 하고 물었다고.

김대통령의 동생 김대익씨의 차남 홍훈씨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빨갱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놀린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고 한다. 아마 홍걸씨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항상 경찰의 감시가 따라붙는 상황에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영숙 총재는 “우리 집 애들도 그렇게 컸으니, 홍걸이인들 다른 상황은 아니었겠죠” 하고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전한다.

외교로 성장한 아들, 가족 모두 안쓰러워해

그런 그에게 80년 5월 17일은 또 다른 충격이었을 것이다. 한참 민감할 나이인 18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그는 온 집안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가는 장면을 직접 목도했다.

5월 17일의 상황에 대해 동교동에서 14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가정부 이길례씨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문 열어’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대문을 심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식탁을 떠났고 그 순간 50여 명의 군인들이 대문을 밀치고 들어와 사람들을 한 방에 몰아넣었다. ... 전화선부터 끊은 군인들은 군화발로 여기저기 다니며 살살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속은 물론 속옷까지 하나하나 뒤져가며 조사를 했다. ...

이틀 뒤 경찰들이 김대표 집을 지키기 시작했다. 가정부 이씨와 조카는 시장갈 때만 출입이 허용됐다. 이여사의 출입은 그 훨씬 뒤인 3개월 뒤부터 허용되었다.

“시장갈 때 경찰이 2명씩 따라다녔어요. 멀리 있는 시장에 가려고 버스라도 타면 우리를 끌어내리곤 했어요.”

가정부 이씨의 상황이 이랬으니 홍걸씨가 어떤 상황 속에서 수험생 시절을 보냈을지는 자명한 일이다. 고립무원 속에 방치돼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수험생 시절을 보내는 아들을 바라보는 이여사나 옥중의 김대통령의 심정 또한 편할 리 없었다. 홍걸씨가 결혼하기 전 김대통령은 어지럽혀진 홍걸씨 방에 가끔 혼자 들어가 말없이 아들 방을 정리해주는 것으로 애정표현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홍걸씨는 이여사의 서간문집에서도 드러나듯 복잡한 집안일들에 지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음악의 세계로 도피해버린 뒤였다.

홍걸씨의 대학생할 또한 순탄치 않았다. 김대통령이 미국 망명길에 오를 때 대학생(고대 불문과)이었던 홍걸씨는 묵묵히 가족을 따라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그가 석사 과정을 7년이나 밟으면서도 최근까지 미국에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처음 마음의 자유를 얻은 땅이 그곳이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측근의 증언.

이여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교’ 이었던 홍걸씨는 아내 임씨와 연애 결혼한 이후에는 소문난 애처가로 오직 가족 속에서만 살았다.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살았던 그는 이번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 ‘베일 속 인물’이었을 뿐이다.

수차례에 걸친 주변의 경고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최극선씨와 연을 끊지 못했던 것은 그의 이런 외곬적인 성격, 성장 배경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박영숙 총재의 분석이다.

“홍걸이는 정치적 야망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애였어요. 성격이 그렇게 내성적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겠



홍걸씨는 지난해 4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타이거풀스 주식 6만6천 주(시가 13억2천만 원),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 4만8천 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수감됐다.

어요? 환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지게 자기 결정을 내리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요. 초인종 소리 들리면 아버지 끌어가고, 초인종 소리 들리면 총 들이대는 세상을 산 애니 어떻게 안 그럴겠습니까? 친구도 없이 그렇게 큰 홍걸 이한테는 살갑게 대해준 최씨가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일부 신문 보도처럼 ‘형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고 대들었다는 건 믿겨지지 않네요. 그 말없고 내성적이던 애가 어떻게...’

주변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 15억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쌓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아무리 철없던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초를 겪은 그이지만 일개 유학생의 신분으로 우리 돈 11억원짜리 저택에 살며 일제 고급 승용차 렉서스를 타고 다녔던 대통령 아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더구나 이미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옥석을 가릴 만한 ‘눈’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18일 밤, 구치소로 들어가는 홍걸씨의 모습은 청와대에 있는 부모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 가슴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W**